

Jean-Michel Othoniel

October, 2020 | 박의령 디렉터





촬영: 김민준, 스타일링: 김민준, 헤어: 김민준, 메이크업: 김민준, 사진: 김민준

장 미셸 오노레는 유리구슬을 워낙 좋아해서도 쉽게 한 데일을 가진 조각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프랑스 출신의 작가는 우리의 기억적이고 반사되는 상상에 대로 되어 1990년대 초반부터 유리를 이용해 작업하기 시작했고, 이렇듯이 무라노부터 인도 라모자까지 각지의 유리 장인들과 협업을 기쳤다. 갤러리 전시를 위한 비즈 또는 유리 블록 작품들과 2000년 파리 지하철도 구의 <야생자들의 키오스크 (Kiosque des Noctambules)>, 2015 년 베르사유 궁전 정원의 <아름다운 휴 (Les Belles Danses)>, 2019년 장 누벨이 설계한 카타르 국립박물관의 1백14개의 유리구슬 분수에 <Alfa> 등 대규모 공공기관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다. 뉴욕 현대미술관, 파리시립 현대미술관, 도쿄 히라 원대미술관 등에 작품이 영구 소장되어 있다.

어떤 계기로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나? 지 미술관 외에 특별한 것이 없는 프랑스 마을 생티에(Saint-Étienne)에서 자랐다. 당시 미술관은 도널드 저드, 로버트 모리스 같은 미국 미니멀리스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했는데, 이는 나를 가능성의 세계로 이끌었다. 나는 매우 중요했다. 미술관을 찾았을 때대로 작가들이 전시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소질 있는 아이였고 모든 화집에도 들어가지만 예술가가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내가 선택한 무언가 되는 것이 아닌 선택받은 길을 가는 것 같았다. 성인이 되었을 때 내 세대는 에이즈로 인해 버림을 받았고 친구들을 잃으며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다. 어두운 시절이 유일하게 긍정적인 점은 내가 더 급진적이고 호사가가 되지 않고 친정으로 예술에 전념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것이다.

당신의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는 무엇인가? 나는

조각가이지만 내 작품의 중요한 측면은 사회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더 넓은 열망이다. 최근 내 작품이 어떻게 세상을 재조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왔다. 내 작품은 기쁨과 희망이 우울함과 섞여 있는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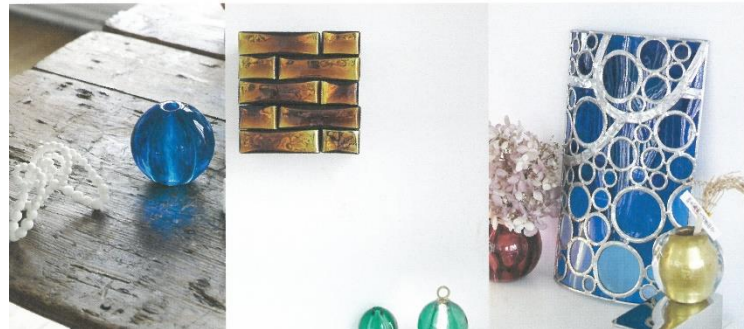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달라. 이번 프로젝트를 하나의 건축물로 접근하여 미치 가방이 실을 크기 별단의 축소 모델인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이 가방은 나에게 생트르페츠의 여블, 브리짓트 바르도가 상징하는 문화, 햇빛 그리고 자연을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해변과 동이이기도 한 리피아를 소재로 사용했다. 행들은 나의 시그니처인 점점 비즈로 제작되었는데 이는 가방의 건축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보다 미니멀하고 그래피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루이 비통 장인들과 함께한 작업은 어땠는가? 프랑스 금속공과 수공예 장인들, 이탈리아 무라노의 유리 장인들과 같이 전문 장인들과 함께 작업하는 것은 내 작품에 꼭 필요한 과정이다. 루이 비통의 장인들과 작업하는 것은 진정한 호사였다. 색상 선택부터 촉감, 탄력 있는 물질의 가방 소재까지 모든 디테일은 정밀함에서 왔다. 나는 루이 비통의 공방과 같이 풍부한 가능성과 안전한 효율성의 기능을 갖춘 스튜디오를 갖는 것을 꿈꿨다. 그것은 마치 가장 유지성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는 것과 같다.

카뎀 백은 본질적으로 움직이는 오브제로 당신의 작품이 공공장소를 배회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나는 항상 미술관을 넘어 대중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한다. 내 작품들이 종종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이유이다. 이 가방이 햇살을 받으며, 장난기 넘치고 기쁨과 생기에 찬 누르갠 의 차에 있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이 프로젝트를 예술로 보나 아니면 패션으로 보나? 예술에 경의를 표하는 패션이라고 생각한다.

리



촬영: 김민준, 스타일링: 김민준, 헤어: 김민준, 메이크업: 김민준, 사진: 김민준